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구성유형과 형태별 위계적 특성 연구*

A Study of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by the Spatial Compositions and the Forms of Activity Areas in Nur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 및 실내계획 전공
조교수 이민아**
Housing & Interior Design Major, Kunsa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Lee, Min-A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design guidelines of activity areas in elderly nursing facilities. For the study, the activity areas of 44 facilities in Korea were investigated to categorize their spatial compositions and forms, and then a case study about 19 facilities was conducted to analyse their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jor type of spatial composition among 44 research facilities was concentration, but compartment type was the main among unit-care facilities. By the year, all the types of spatial composition were evenly distributed during recent five years, while concentration type was about 40% before 2003. Second, the major form of activity areas was hall or corridor extension for large group. But there was more alcove or separation form among small group spaces. Third, in the case analysis about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hall and corridor extension form met the requirements of accessibility and openness of public and semi-public areas. On the other hand, separation form had a problem in satisfying both requirements. The semi-private areas, which were around the elderly bedrooms and the elderly were able to watch activities in, were not sufficient in many facilities. Fourth, the division of public and semi-public area was mainly by furniture, and the individuality of semi-private area was defined by dead-end place and corner seats of the window or the corridor. The diversity of semi-private area was likely to be appeared in connection or distribution typ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basic design guidelines for activity areas in elderly nursing facilities could be suggested as follows: On the whole, connection or distribution type in spatial composition is more efficient for hierarchical flow than concentration or compartment type is, especially in Korean facilities having many elderly residents per floor. In detail, the design of public and semi-public area should be focused on their openness and accessibility. The recommended forms of activity areas were hall or corridor extension in public area, and living room, corridor extension, or large corridor in semi-public area to effectively function as large or small group spaces. In semi-private areas, the spatial diversity and individuality should be considered.

▲주요어(Key Words) : 노인요양시설(nursing facility for the elderly), 활동공간(activity areas), 위계적 특성(hierarchical characteristics)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분임
(KRF-2007-331-C00300)

** 주 저 자 : 이민아 (E-mail : leema@kunsan.ac.kr)

I. 서 론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까지 전국에 543개가 운영되던 것이 2007년에는 1,114개로 증가하였고,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 이전에 별개로 분류 되었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2005년 187개에서 2007년 439개로 급증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자료실 통계자료, www.mw.go.kr). 치매, 중풍과 같은 중증노인성 질환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가족의 감소와 더불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을 기해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신설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인요양시설은 거주자 질병특성상 대부분의 생활이 건물의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 시 노인의 개인적인 요양생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행동 및 상호작용 관련행동도 시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시설을 집과 같은 환경으로 구성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시설의 전체적인 공간구성이나 일정 공간(휴게실, 복도, 화장실, 개인실 등)의 계획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고, 상호작용 관련 행동과 같은 특정행동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노인에게 심리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장소는 사적인 거주실 보다는 다른 거주자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상호교류를 하는 장소, 즉, 시설 내에서 유일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김민석, 2005; 윤영선·변혜령, 2004). 여기에는 휴게실, 로비 등의 공용기능공간과, 그 밖에 복도, 알코브, 데이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그 용어나 범위, 유형 등이 문헌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을 통틀어 “활동공간”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활동공간은 거주실이나 거주단위를 이어주는 소통의 장소가 되어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위계적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의 대부분 시설은 건물이 먼저 설립된 후에 내부 시스템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설계자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공된 활동공간의 구성이나 구조적 형태가 전체 공간의 위계적 흐름과 특성을 결정짓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인 입소 후 거주단위별 관리정책과 프로그램 구성 뿐 아니라 영역별 가구 및 설비의 배치, 더 나아가 사용자의 공간 이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활동공간의 다양한 구성유형과 형태를 분류하여 그 장단점과 그 특성을 분석한다면 향후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계획 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인요양시설¹⁾을 중심으로 먼저

활동공간을 구성유형과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위계적 특성을 사례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계획 지침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요소 및 정의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활동공간과 비슷한 용도의 공간을 공용공간, 공유공간, 공동생활실 등으로 칭하고 있고(손수진·이특구, 1999; 이현정 등, 2007; 정여주·최상현, 2005), 입소자 대 입소자, 입소자 대 직원, 입소자 대 외부인과의 사회적 행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친교공간이라고 칭한 경우도 있다(민대홍, 2005). 김민석(2005)은 거실 개념으로 쉬거나 간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데이룸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시설에서 공간의 이용도가 가장 높고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라고 하였다. 이현정 등(2007)은 유니트케어 측면에서 공동생활실을 설명하면서 한 개의 유니트에 소파와 같은 안락한 가구가 설치되어 담화 및 TV 시청을 할 수 있는 리빙공간과 식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주방과 연결된 다이닝공간을 들었다. 반면, 정여주와 최상현(2005)은 여기에 보다 큰 범위의 홀과 복도를 추가하여 공용공간에 포함시켰고, 이 중 홀은 휴게실이라고도 하며 노인이 가장 많이 모이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교류의 장소로 보았다. 호주 노인 간호 집합주거를 조사한 최성형과 김창국(2004)도 식당과 함께 홀과 비슷한 성격의 라운지를 거주자들의 친교를 맺는 중요장소, 일상생활의 주된 활동공간이라고 하였고, 이 외에 거주자들의 오락, 친교, 사회적 교류, 치료 프로그램 등의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부엌, 활동실, 치료실, 정원과 같은 공적생활공간을 언급하였다. 최지혜 등(2004)은 기능단위별로 분류하여 거주기능공간의 데이룸과 복도, 공용기능공간의 휴게실, 로비, 오락실, 일광욕실, 면회/상담실, 식당을 노인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았으며, 손수진과 이특구(1999)는 건물 내 전유공간 이외의 공간, 즉,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거주자들이 어느 정도의 소유권과 영역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 커뮤니티 형성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복도공간을 이용한 알코브, 데이룸, 라운지 등을 들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는 공용공간과 친교공간 모두 본 연구의 활동공간 개념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공용공간은 치매 노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이전 분류되었던 중증 노인성 질환의 노인이 생활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임을 밝힌다.

1)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노인요양시설은 2007년 8월 노

관리의 편의를 위해 거주자들을 모아두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윤영선·변혜령, 2004), 친교공간은 노인들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노인의 휴식과 개인적인 취미활동, 구경 및 관찰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동공간이란 층별로 개인 거주실을 제외하고 다수의 노인들, 혹은 소그룹으로 형성된 몇몇 노인들이 모여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을 하거나 다른 이들의 활동을 구경, 관찰,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상호작용 할 수 있으며, 2~3인이 모여서 혹은 개인적으로 취미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2.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유형

활동공간은 노인의 개인공간인 거주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거주단위(유니트)나 간호단위의 유형분류에 활동공간을 일부 포함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시설 내 다양한 공간의 배치형태를 기준으로 복도형(편복도, 중복도, 넓은복도), 그룹형, 순환복도형, 복합형(권순정·오종희, 2004), 혹은 복도형, 알코브형, 날개형, 중앙홀형, 중정형(송혜정, 2002) 등으로 분류한 예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성의 유형과 형태의 분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권순정 등(2006)은 공간의 용도별 구분 여부에 따라 다목적활형식 혹은 구분형식으로 분류하여 장단점을 논하였는데, 다목적활을 두는 것은 소규모 시설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거주자와 직원 간 의사소통이 쉽지만 특수 목적의 생활공간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구분하는 타입에서는 입소자의 출입관리가 어렵고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활동공간의 위치 측면에서 이현정 등(2007)은 수직분리형, 단계적 분리형, 혼재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활동공간이 생활공간과 층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수직분리형, 같은 층 내에서 위계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공용공간이 형성된 단계적 분리형, 생활공간과 공용공간이 특별한 분리 없이 같은 층에 공존하는 것이 혼재형으로 설명되었다. 임상식(2006)은 활동공간을 그 배치형식에 따라 유니트독립형, 가로형, 단계구성형, 분리형으로 분류하였다. 유니트독립형은 유니트별로 출입문이 따로 있고 각각 거주실과 소그룹 활동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고, 가로형은 복도를 따라 거주실과 소그룹공간이 연속적으로 배치된 것, 단계구성형은 중앙에 대그룹공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소그룹공간과 거주실이 유니트별로 배치된 형태, 분리형은 소그룹공간이 연속된 거주실의 끝 부분에 고립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한편, 김정환(1999)은 대그룹 공간과 소그룹 공간의 유형을 별개로 분류하였는데, 먼저 대그룹형태는 시설 내 공용공간의 개수가 1개인 아트리움형과 층별로 분산되어 있는 층별 분산형

으로 분류한 반면, 소그룹 공간인 데이룸은 형태별로 중앙홀형, 알코브형, 복도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이민아(2007)는 홀형, 독립형, 복도확장형으로 분류하였고, 여기에 거실형을 추가하였다. 류승수(2001)는 활동공간의 동선을 고려하여 콜데삭형, 브랜치형, 스트리트형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는 활동공간의 용도, 위치, 배치형식, 그리고 그룹별 공간의 유형을 형태 및 동선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 공간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니트 케어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공간구성, 형태, 그리고 그룹별 유형 간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에 초점을 두고 활동공간의 다양한 특성을 포함할 수 있는 유형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3.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위계성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 Oscar Newman은 1972년 “방어 가능한 공간 이론(Defensible space theory)”의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에 있어서 주거환경은 정부의 중재나 간섭이 아닌 거주자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순환로나 공용출입구와 같은 공공영역에 대해 거주자 개개인이 일정한 소유의식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경우, 사회사회의 범죄예방은 물론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거주민들의 통합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Newman, 1996: 9; Wikipedia, 2008). 이 이론은 공공영역을 가진 모든 형태의 주거에 적용이 되어왔는데, Howell(1980: 42)은 이를 노인주거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주거환경을 거주자의 접근과 활동 등의 사용패턴에 따른 공간의 4가지 영역(Zone)-공적(Public), 준공적(Semi-public), 준사적(Semi-private), 사적(Private)-으로 분류하였고, 이 중 공적, 준공적, 준사적 영역을 공용공간(Shared space)으로 보았다. 그녀는 노인주거의 공용공간에 있어서 통로와 같은 준사적영역의 구경, 관찰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거주노인이 공적영역의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는 그들의 결정에 달렸으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간에 중재 역할을 하는 구경관찰 공간의 디자인을 통해 노인들은 주변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Pinet, 1995 재인용: 19-23, 259).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노인의 독립성과 상호작용을 동시에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노인의 개인거주실인 사적영역에서 준사적, 준공적, 공적영역으로의 위계적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 Cohen과 Weisman(1991: 83)은 관찰과 같은 소극적 참여에서 적극적 활동까지 강약이 조절된 자극의 제공을 강조하였으며, 한편과 권순정(2005)도 요양실에 가까울수록 약한 자극(일상적 만남), 멀수록 강한 자극(TV시청이나 레크레이션 활동)에 연계하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준공적 및 공적영역 주변에 관찰/구경 공간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참여욕구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활동공간의 위계적 특성에 대한 문헌은 주로 공간의 위계적 흐름과 함께 각 영역의 위계적 효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많은 문헌과 연구에서 준사적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Cohen과 Weisman(1991: 83)은 공적영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예로, 발코니, 구석장소, 창문코너, 벤치 등을 예로 들었고, 독자성을 위한 둘러싸인 느낌을 강조하였으며, 개인 거주실 앞 준사적영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손수진과 이특구(1999), 민대홍(2005)은 복도에 알코브와 소파를 마련하여 소그룹 활동을 장려하고, 대그룹 활동공간에도 준사적영역을 부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독립적인 개인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Regnier(2002: 76)는 "100% 코너"를 언급하면서 공식 활동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면서 다소 고립된, 하지만 주요 통로와 활동공간이 보이는 장소로 2~3인이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상호작용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시설 곳곳에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Brawley(2006:165)는 모임장소에 작은 알코브를 만들어 주거나 거실 내에서 사적인 대화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장소를 함께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준사적영역의 가구배치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코너를 활용한 L자, C자, 혹은 마주보는 형태의 가구를 배치를 통해 공간의 장소성 및 영역성을 확보해야 준사적영역에서 준공적영역의 단계적 형성과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민대홍, 2005, 이민아, 2006; 정여주·최상현, 2005; 한균·권순정, 2005).

준공적영역은 공식적 프로그램과 비공식적 담화가 소규모

로 발생하는 장소로 대표공간은 테이블이고 식당과 겸용이 가능하며 치료주방을 설치할 수도 있다. 거주실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 준사적영역이 혼재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활동(독서, TV, 대화, 휴식, 식사, 오락, 종교활동 등)이 가능한 가변적인 배치와 다양한 공간 조닝이 필요하다(권순정 등, 2006). 한편, 휴게홀, 로비와 같은 공적영역은 주로 시설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모든 노인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적으로 계획하는데, 직원의 관찰이 쉽고 한 눈에 전체공간의 인지가 가능하고 시선의 차단이 없어야 한다(김민경, 2005; 류승수, 2001; 송혜정, 2002). 또한, 로비, 취미활동실, 대식당 등과 같이 높은 자극이 제공되는 공간은 시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압도되지 않도록 가정적인 스케일로 활동영역을 분할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다른 색의 마감재, 알코브, 연결공간, 공간구획 등으로 다양하며 사회적 접촉을 위해 벽을 따라 일렬로 가구를 배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Cohen & Weisman, 1991: 97; Regnier, 2002: 76).

본 연구에서 유형 분류된 활동공간은 위의 내용에 따라 각 영역별 위계적 특성이 분석되었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표 1>에 나타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국내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활동공간의 구성유형과 형태를 분류한 뒤 그 경향을 조사하고, 둘째로 사례시설을 선

<표 1> 위계적 영역에 대한 문헌고찰 정리

항 목	공적영역	준공적영역	준사적영역
용 도	· 공식활동	· 자연스러운 만남/담소 · 소그룹 공식활동	· 2-3명의 비공식적 상호작용 · 활동의 조망/관찰 · 휴식 및 개인 관심활동
위 치	· 접근성: 각 단위의 중심부에 위치 · 개방성: 직원의 관찰이 쉽고, 시선의 차단이 없도록	· 접근성: 개인실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	· 개인 거주실과 근접한 곳 · 공적·준공적영역과 거리를 두되, 활동의 관찰이 가능한 곳 · 준공적 혹은 공적영역 주변, 혹은 일부분
위계적 흐름*	·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에 이르기 까지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		
공간특성*	· 융통성: 필요에 의해 공간구성의 변화용이 · 영역분할: 다양한 조닝, 알코브, 다른 색의 마감재, 연결 공간, 공간구획 등을 통한 경계설정		· 독자성: 발코니, 구석장소, 둘러싸인 느낌, 창문코너, 벤치, 혹은 단차 등의 형태 · 다양성: 공간의 크기 및 가구배치(특히 2-3인용)를 다양하게 하여 분산배치
가구배치*	· 벽을 따라 구성되는 소파 및 의자 등의 일렬배치 지양 · 다인용 테이블의 사용 및 소인용 테이블의 일렬배치 지양 · L자, C자, 마주보는 배치 형태 권장		

* 위 항목 중 위계적 흐름과 가구배치는 전체영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내용이며, 공간특성의 경우 공적·준공적영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과 준사적영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각기 정리되었음.

정하여 활동공간의 구성유형과 형태별로 위계적 특성을 분석 하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의 활동공간을 분류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던 시설 28개와 국내 문헌에 소개된 시설 16개, 총 44개 시설의 도면을 수집하였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특성상 층 내에서 대부분 활동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각 시설의 한 개 층에 배치된 모든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활동공간의 구성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한 뒤 이를 관리유형과 개원연도,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개별 활동공간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각 시설 당 2개의 대표적 활동공간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활동공간의 구성유형과 형태별 위계적 특성을 사례분석하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활동공간의 가구 및 설비배치와 거주노인들의 공간 이용행태를 관찰한 시설 중 시설의 거주단위 관리 형태와 활동공간 구성유형이 고루 분포되도록 18개소를 선택하였다. 시설의 거주단위 관리 형태는 유니트케어 여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주실 인원과 상관없이 몇 개의 거주실을 그룹화 하여 노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할 때 하나의 거주단위(Unit)가 형성되며, 층별로 2개 이상의 거주단위가 형성되었을 경우 유니트케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²⁾. 또한, 기존 문헌에 해당공간의 가구배치 및 사진, 관련공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공간구성 파악에 무리가 없는 시설 1개를 포함, 총 19개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시설의 개원연도를 비롯한 지역, 입소정원, 비용, 입지, 규모, 거주층 등의 기본적 사항을 알아본 뒤, 기존 문헌에서 조사된 각 활동공간의 위계적 흐름과 영역별 특성을 내용분석 하였다.

IV. 결과분석

1.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구성유형과 형태

1) 활동공간의 구성유형

2) 일본의 경우 2003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생활 단위형”이라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을 규정하여 유니트케어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전실 개인실을 원칙으로 하여 공동생활실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10명 이하의 거주노인을 하나의 유니트로 관리하고 있다(이재모, 2004; 이현정 외, 2007)). 반면, 다인실이 대부분인 국내의 경우 다인실을 몇 개 묶어서 그룹화 한 경우도 유니트케어로 보는 등(오은진, 2006) 유니트케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니트별 적정인원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총 44개시설의 한 개 층에 위치한 모든 활동공간들의 공간구성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활동공간의 구성유형을 집중형, 연계형, 구획형, 분산형으

로 구분하고(<표 2> 참조), 층별 유니트케어를 하고 있는 시설의 활동공간 구성유형을 위계적연결, 유니트연결, 유니트독립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3> 참조), 이를 기준으로 국내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구성유형을 관리유형별, 연도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사시설 중 집중형 활동공간을 가진 시설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구획형(13개), 연계형(9개), 분산형(6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니트케어를 하고 있는 16개 시설 중에서는 유니트연결형 즉, 대그룹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각 거주단위가 개별적인 출입구나 복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유형이 많았다(10개). 유니트케어 시설은 각 단위별로 구분된 활동공간으로 인해 구획형 시설이 가장 많고(7개) 연계형이 가장 적은데 비해(1개), 비유니트케어 시설은 집중형(12개)이 많았고 다음으로 연계형(8개), 구획형(6개), 분산형(2개)의 순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비유니트케어 시설은 층 전체가 간호단위 겸 거주단위이기 때문에 활동공간을 한 장소에 집중, 혹은 인접한 곳에 연계시켜 거주노인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도별로 2003년까지는 집중형이 가장 많았으나, 2004년 이후 개원한 시설의 활동공간은 모든 유형에 골고루 분포되고 있으며, 구획형과 분산형이 약간 더 많은 추세이다.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나 서울, 경기 수도권지역의 시설에서만 분산형 활동공간이 나타났다.

2) 활동공간의 형태

개별 활동공간의 형태를 기준으로 홀, 복도확장, 넓은복도, 일반복도, 독립, 거실, 알코브의 7가지로 구분하였고(<표 5>), 44개의 조사대상 시설에서 각각 대표적 활동공간 2개의 형태를 위에서 구분한 공간구성 유형별로 살펴보았다(<표 6>). 활동공간1은 대부분 해당시설의 층 전체 노인이 모일 수 있는 대그룹 공간, 활동공간2는 거주노인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유니트케어 시설 중 대그룹공간이 없는 시설은 거주노인의 그룹공간 중 그 규모가 큰 공간을 순서대로 선택하였다.

<표 6>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공간1은 홀과 복도확장 형태가 가장 많아(각각 16개, 15개 시설), 대그룹 공간의 대표적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공간구성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집중형의 경우 복도확장(7개), 구획형은 홀(8개)의 형태가 많았는데, 집중형과 같이 활동공간이 한 부분에 집중된 경우 그 용도가

<표 2>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 구성유형

구 성	특 징	다이어그램
집중형	1-2개의 활동공간이 층의 일정부분에 집중	
연계형	2-3개의 활동공간이 복도코너 등을 통해 인접한 곳에 연계	
구획형	2-3개의 활동공간이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혹은 벽 등의 구획을 통해 구성	
분산형	1-2개의 주요활동공간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활동공간이 개방·반개방 형태로 분산	

■ : 활동공간

<표 3> 유니트케어 시설의 활동공간 유형

유 형	특 징	다이어그램
위계적 연결	입구에서 공적영역이 시작되어 준공적/준사적 영역을 거쳐 개인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	
유니트 연결	대그룹공간을 중심으로 개별 출입구를 가진 거주단위가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거주단위 별로 소규모 활동공간을 보유	
유니트 독립	대그룹 공간 없이 각 거주단위가 개별적인 활동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	








■ : 공적영역, ■ : 준공적영역, ● : 준사적영역

<표 4>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활동공간 구성유형

개소

		집 중	연 계	구 획	분 산	계	
전 체		16	9	13	6	44	
관리유형	유니트케어	위계적연결	-	-	2	2	
		유니트연결	1	-	7	2	10
		유니트독립	3	1	-	-	4
	소 계		4	1	7	4	16
비유니트케어		12	8	6	2	28	
개 원	2000년 이전	6	2	5	1	14	
	2000~2003	7	4	4	1	16	
	2004~2007	3	3	4	4	14	
지 역	서울	2	3	2	2	9	
	부산	3	2	1	-	6	
	인천	1	1	1	-	3	
	대구	-	-	1	-	1	
	대전	1	-	1	-	2	
	광주	1	-	-	-	1	
	경기	1	1	4	4	10	
	경남	2	-	1	-	3	
	경북	1	-	-	-	1	
	전남	-	-	1	-	1	
전북	3	2	1	-	6		
제주	1	-	-	-	1		

<표 5>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형태

형 태	설 명	사 진
홀	층의 입구나 중심부에 라운지 형태로 위치한 형태	
복도확장	통행복도의 일부공간이 확장된 형태	
넓은복도	복도를 넓게 하여 통행과 활동 공간의 명확한 구별이 없는 형태	
일반복도	통행 복도의 벽이나 한 쪽에 가구를 배치한 형태	
독 립	거주단위의 막다른 곳에 공간을 만들어놓은 독립된 형태	
거 실	가정의 거실과 같은 스케일의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거주실이 배치된 형태	
알코브	벽의 일부분이 들어가거나 복도의 코너를 이용하여 소규모의 공간을 마련한 형태	

<표 6>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주요 활동공간 형태와 구성유형

개소

형 태	구성유형	집 중	연 계	구 획	분 산	계
활동공간1*	홀	4	3	8	1	16
	복도확장	7	3	3	2	15
	넓은복도	1	3	1	1	6
	독 립	3	-	1	2	6
	거 실	1	-	-	-	1
활동공간2**	홀	-	2	-	-	2
	복도확장	-	3	3	-	6
	넓은복도	-	2	-	-	2
	독 립	-	-	5	3	8
	거 실	-	-	2	-	2
	알코브	-	2	3	3	8

* 시설의 층 전체 노인이 모일 수 있는 대그룹공간, 혹은 층 내 그룹공간 중 가장 규모가 큰 공간

** 거주노인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

식사, 휴식,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복도의 한쪽을 확장시켜 장소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 목적에 따라 공간이 구분되는 구획형의 대그룹공간은 층 전체의 노인을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층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홀 형태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활동공간2는 활동공간1에서 나타나지 않았거나 소수에 불과했던 알코브와 독립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각각 8개) 대조를 보였다. 이는 대그룹공간을 제외한 기타 소규모 활동공간들이 공간의 독자성과 영역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위주로 하여 배치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위계적 특성

1) 사례 요양시설 개요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위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의 44개 시설 중 활동공간의 구성유형 및 유니트케어 여부, 지역 등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골고루 분포되도록 고려하여 19개를 사례시설로 설정하였고, 각 시설의 기본적인 사항을 <표 7>에 정리하였다. 사례시설 중 유니트케어 시설은 10개, 비유니트케어 시설은 9개가 선정되었으며, 각 활동공간의 구성유형별(집중, 연계, 구획, 분산)로 4~5개의 시설이 선택되었다. 2000년 이전에 개원한 시설은 2개(E, I시설), 2000년에서 2003년은 5개(A, C, F, H, K시설),

<표 7> 사례 노인요양시설의 기본적 사항

시설	관리	활동공간 구성유형	개원	지역	정원	비용	입지	지하/지상	거주층	기준층
A	유니트독립	집중	2003	부산	52	무료	도시	1/4	2, 3	3
B	-	집중	2004	서울	80	무료	도시	2/6	2, 3, 4, 5	2
C	-	집중	2002	전북	55	무료	전원	1/2	2	2
D	유니트독립	집중	2005	서울	100	실비	도시	1/4	2, 3, 4	3
E	-	집중	1998	부산	126	무료	도시	1/4	3, 4	3
F	-	연계	2002	서울	53	무료	도시	1/3	2, 3	2
G	유니트독립	연계	2006	서울	165	무료	도시	2/5	2, 3, 4	3
H	-	연계	2001	전북	78	무료	전원	1/2	1	1
I	-	연계	1996	인천	180	무료	도시	1/6	2, 3, 4, 5	3
J	-	연계	2005	경기	60	무료	전원	1/4	2, 3	2
K	-	구획	2001	전북	72	무료	도시근교	1/2	1, 2	2
L	유니트연결	구획	2004	인천	60	무료	전원	1/3	2, 3	2
M	유니트연결	구획	2005	경기	100	무료	도시	1/3	1, 2, 3	2
N	유니트연결	구획	2005	경기	100	무료	도시	1/3	2, 3	2
O	유니트연결	구획	2004	경기	145	무료	도시	1/3	2, 3	2
P	-	분산	2004	경기	100	무료	도시	1/3	2, 3	2
Q	위계적연결	분산	2005	경기	50	무료	도시근교	1/3	1, 2, 3	2
R	유니트연결	분산	2007	서울	250	실비	도시	1/6	1, 2, 3, 4, 5	2
S	유니트연결	분산	2005	서울	250	실비	도시	1/5	2, 3, 4, 5	2

나머지 12개 시설은 모두 2004년 이후에 개원하여, 주로 최근 시설이 사례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각각 6개씩 12개, 전북지역이 3개, 부산과 인천 지역이 각각 2개씩 4개였다. 시설의 입소정원은 100명 이상의 시설이 10개였으며, 3개가 실비(D, R, S시설)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운영되었고, 입지유형으로는 전원지역이 4개(C, H, J, L시설), 도시근교(K, Q시설)가 2개이고 나머지 13개 시설은 모두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시설의 규모는 10개가 2~3층 정도였으며, 5층 이상의 시설도 5개가 있었다(B, G, I, R, S).

2) 영역별 활동공간의 형태, 위치 및 위계적 흐름

문헌고찰에서 정리된 활동공간의 용도를 기준으로 각 영역을 구분하였고, 각 영역별 활동공간의 형태와 위치특성, 그리고 위계적 흐름을 알아보았다(<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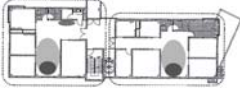







먼저 공적영역의 성격은 대부분 각 층의 대그룹 공간에 해당하였고, 4개 시설을 제외한 15개 시설이 대그룹 공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홀 형태가 5개(E, M, N, O, S시설), 복도확장이 3개(C, L, R시설), 독립 형태가 2개(K, P시설), 넓은복도가 1개 시설(B시설)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시설은 모두 공간구성 측면에서 연계형 시설로서 몇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났다(F, H, I, J시설). 활동공간의 위치 측면에서 대부분 직원의 관찰이 쉽고 시선의 차단 없이 개방적으로 배치되었으나, 시설의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아 모든 거주노인의 접근이 균등하지 않은 시설이 있었다(B, F, H, J, K, P 시설). 공적영역의 주요형태인 홀과 복도확장 7개 시설은 접근성과 개방성을 모두 만족한 반면, 독립 형태로 층의 한

쪽 끝에 공간이 마련된 K시설은 접근성과 개방성 모두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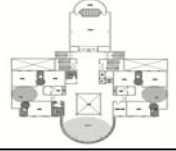

다음으로 준공적영역의 성격을 가진 활동공간은 각 거주단위별로 배치된 소그룹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19개 시설 중 9개 시설이 소그룹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중 대그룹공간도 동시에 보유한 시설은 5개로(L, N, O, R, S시설) 활동공간 구성유형이 구획형 혹은 분산형에 해당하는 시설이었다. 소그룹공간은 독립 형태가 4개(O, Q, R, S시설)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분산형 시설에서 나타났고, 다음으로 거실 형태가 3개(A, L, N시설), 그리고 복도확장(D, Q시설), 넓은복도(G시설) 등이 있었다. 문헌에서 강조된 거주실로부터의 접근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 각 단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에 문제가 없었으나, 한 쪽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준공적영역의 주요형태로 나타난 독립 형태에서 접근성에 문제가 나타났다(O, R, S시설).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공된 공간을 노인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게 되어 공간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므로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준사적영역은 시설별로 1~4개 형태로 분포되고 있었다. 공적영역이나 준공적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일반복도와 알코브가 각각 10개 및 9개 시설에서 나타났고, 복도확장과 독립 형태가 각각 1개 시설에서 나타났다. E와 L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설의 준사적영역이 공적·준공적 활동공간의 일부이거나 겸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위치에 있어서 문헌고찰의 내용(<표 8>의 *참조)을 모두 만족하는 시설이 8개(A, B, C, G, H, P, Q, R시설)로 나타났고, 많은 시설들이 거주실에서 근접한 곳과 공적·준공적영역과 거리를

<표 8> 영역별 활동공간의 형태, 위치 및 위계적 흐름

시설	공적영역		준공적영역		준사적영역		위계적 흐름**
	형 태	위 치		형 태	위 치		
		접근성	개방성		접근성	형 태	
A			거 실	O	일반복도	②	
					준공적겸용	①, ③	
B	넓은복도	-	O		알코브	①	
					일반복도	②	
					공적겸용	③	
C	복도확장	O	O		일반복도	①, ②	
					공적일부	③	
D			복도확장	O	준공적일부	③	
E	홀	O	O		일반복도	②	
F	넓은복도 + 복도확장	-	O		알코브	①, ③	
					공적일부	③	
G			넓은복도	O	알코브	①, ②	
					일반복도	②	
					준공적일부	①, ③	
H	복도확장 + 홀	-	O		알코브	②	
					일반복도	①	
					공적일부	③	
I	홀 + 넓은복도	O	O		공적겸용	③	
					공적일부	③	
					넓은복도	②	
J	홀 + 복도확장	-	O		일반복도	①	
					공적겸용	③	

<표 8> 계속

시설	공적영역				준공적영역		준사적영역		위계적 흐름**
	형 태	위 치		형 태	위 치	형 태	위치*		
		접근성	개방성					접근성	
K	독 립	-	-			공적일부	③		
						복도확장	-		
L	복도확장	O	O	거 실	O	알코브	①		
M	홀	O	O			독 립	-		
						준공적겸용	③		
N	홀	O	O	거 실	O	일반복도	②		
						공적일부	③		
O	홀	O	O	독 립	-	공적일부	③		
						준공적겸용	③		
P	독 립	-	O			알코브	①, ②		
						공적겸용	③		
Q				복도확장	O	알코브	①, ②		
				독 립	O	준공적일부	③		
R	복도확장	O	O	독 립	-	일반복도	②		
						알코브	①		
						준공적겸용	③		
S	홀	O	O	독 립	-	공적일부	③		
						일반복도	③		
						알코브	②		
						준공적겸용	③		

* ① 거주실과 근접한 곳, ② 공적·준공적영역과 거리를 두되 활동의 관찰이 가능한 곳, ③ 공적·준공적영역 주변, 혹은 일부분 (만족하는 항목의 번호를 적었음)

** ■ : 공적영역, ■ : 준공적영역, ■ : 준사적영역

두면서 활동의 관찰이 가능한 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획형(K~O시설)은 시설 당 평균 1개 정도의 항목

만 충족시키고 있어 준사적영역이 매우 단조롭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층별 전체 활동공간의 위계적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례시설이 공적영역(대그룹공간), 준공적영역(소그룹공간), 준사적영역(개인휴식 및 구경·관찰공간)의 제공에만 치중했을 뿐, 그 흐름은 고려하지 않아 각 영역이 별다른 기준 없이 혼재되어 있어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실과 근접한 곳, 공적·준공적영역의 주변, 그리고 활동의 관찰이 가능하면서 약간의 고립장소에 준사적영역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영역의 위계적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공적·준공적영역이 층의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았다거나(B, H, P, R시설), 층

별 거주노인의 과밀에도 불구하고 준공적영역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C, H시설) 위계적 흐름은 형성되지 않았다. 연계형의 G시설과 분산형의 Q시설이 영역별 위계적 흐름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유니트케어 시설로서 공적영역대신 거주단위별로 중심부에 준공적영역을 두고 다양한 준사적영역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3) 활동공간의 위계적 특성과 가구배치

활동공간의 효율적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준공적영역의 융통성과 영역분할, 가구배치, 그리고 준사

<표 9> 활동공간의 위계적 특성 및 가구배치

시설	공적·준공적영역			준사적영역		관련사진	
	융통성*	영역분할	가구배치형식	독자성	다양성**		가구배치형식
A	②, ③	-가구구획	-소파일렬배치 -다인용테이블	-	일부	-의자일렬배치 -다인용테이블	
B	②, ③	-가구구획	-소파 7자배치 -다인용테이블	-	일부	-2인용테이블 -12인용테이블	
C	①, ②, ③	-	-좌식테이블 -소파일렬배치	-	일부	-의자일렬배치 -소파일렬배치	
D	①, ②	-	-다인용테이블 -소파일렬배치	-	제한	-소파일렬배치	
E	②, ③	-	-4인용테이블	-	제한	-평상 -의자일렬배치	
F	①, ②	-복도코너	-다인용테이블	-	일부	-다인용테이블	
G	②, ③	-	-다인용테이블 -소파일렬배치	창문코너	다양	-7자형소파배치 -소파일렬배치	
H	①, ②, ③	-가구구획 -공간연결	-좌식테이블 -소파일렬배치	복도코너 둘러싸인 느낌	다양	-소파 7자배치 -소파일렬배치 -마주보는 소파배치	
I	②	-가구구획 -복도코너	-소파일렬배치 -다인용테이블	-	일부	-소파일렬배치	
J	①, ②, ③	-가구구획 -바닥마감	-빈 공간 -4인용테이블	-	일부	-벤치일렬배치 -4인용테이블	
K	①, ②	-	-4인용테이블	구석장소	일부	-소파일렬배치 -마주보는 소파배치	
L	②, ③	-	-소파일렬배치	-	제한	-가구없음	
M	②	-	-소파일렬배치	막다른장소	일부	-소파일렬배치 -다인용테이블	
N	②	-	-소파일렬배치 -다인용테이블	발코니	일부	-의자/소파일렬배치	

<표 9> 계속

시설	공적·준공적영역			준사적영역			관련사진
	융통성*	영역분할	가구배치형식	독자성	다양성**	가구배치형식	
O	①, ②, ③ (준공적①,②)	-	-소파일렬배치 /4인용테이블	-	일부	-소파일렬배치 -4인용테이블	
P	①, ②, ③	-가구구획 -알코브	-4인용테이블 -소파일렬배치	-	일부	-소파일렬배치	
Q	②, ③	-	-4인용테이블	구석장소	일부	-소파일렬배치	
R	①, ② (준공적②,③)	-가구구획	-소파일렬배치 -4인용테이블	구석장소 벤치	다양	-마주보는 소파 -2/4인용테이블/벤치 -1인용벤치 -의자일렬배치	
S	①, ② (준공적②,③)	-가구구획	-4인용테이블 (소파 1자배치, 4인용테이블)	구석장소 창문코너	다양	-소파일렬배치/ 1자배치 -6인용테이블 -소파일렬배치/벤치	

* ①가구의 높이/크기/모양의 조절가능성, ②가구의 이동가능성, ③변용 가능한 공간여유

** 공간크기와 가구배치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양", 1가지만 충족하는 경우 "일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제한"으로 표기하였음

적영역의 독자성과 다양성, 가구배치를 살펴보았다(<표 9>).

먼저 공적·준공적영역의 융통성³⁾을 가구의 조절가능성과 이동가능성, 그리고 변용가능한 공간적 여유를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대부분 가구의 이동은 가능하였고, 가구의 조절이 가능한 공간은 10개 시설 정도에 나타났으며,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설은 총 19개 중 7개 시설(C, H, J, O, P, R, S시설)에 불과했다. 시설의 설계와 내부 시스템 구성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국내 상황에서 활동공간의 융통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용도에 맞지 않는 공간, 사용이 불편한 공간, 혹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증가될 것이다. 한편, 동일영역에서의 분할은 19개 시설 중 9개소에서 나타났다. 가구구획을 통한 영역분할이 가장 많아 공간의 한쪽을 소파와 테이블 공간, 다른 한쪽은 입식테이블과 의자공간으로 분리하고 있었다. F와 I시설의 경우 복도의 코너부분을 이용한 영역 분할, H시설은 중정으로의 공간연결, J시설은 바닥마감재의 구별, P시설은 알코브 형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역을 분할하고 있었다. 가구배치의 경우 B, O, S시설에서 상호작용에 유리한 L자, U자, 마주보는 형태가 보였을 뿐, 대부분 소파나 테이블이 벽을 따라 구성되는 일렬배치였다. 우리나라의 시설은 층별, 혹은 단위별 거주노인이 많기 때문에 공적영역이나 준공적영역의 좌석과 테이블의 일렬배치, 다인용테이블이

관리상의 편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거주노인들이 활동공간을 가정 내 거실과 같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시설의 정책적 유도 없이 자율적으로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시설 분위기의 가구배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준사적영역 내 활동공간의 독자성을 살펴본 결과 8개 시설에서 11건이 나타났다. 구석장소, 혹은 막다른 장소로 독자성을 확보한 경우가 5건이 있었고, 창문코너나 복도코너가 3건, 그 외에 둘러싸인 느낌, 발코니, 벤치 등이 있었다. 총 내 70명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H시설은 복도의 코너와 중정을 활용하여 준사적영역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공간의 다양성을 살펴본 결과 연계형인 G, H시설과 분산형인 R, S시설이 다양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시설은 입구와 준공적영역의 복도, 그리고 벽 알코브 쪽 테이블을 통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H시설은 중정 주변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준사적영역의 분산이 특징이었다. R, S시설은 날개형식으로 구분된 거주단위로 인해 동선이 길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도 곳곳에 알코브형식의 1인용 붙박이 벤치와 2인용 테이블을 두었고, 특히 S시설은 거주단위와 간호단위의 경계부분과 대그룹공간의 주변을 활용한 공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사진 1> 참조). 준사적영역의 가구배치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소파나 의자의 일렬배치가 많았는데, 1자형이나 마주보는 소파를 배치한 시설은 5개(G, H, K, R, S시설)가 있었으며, 2인용이나 4인용 테이블을 이용한 시

3) 이민아(2006)는 활동공간의 융통성을 가구의 높이, 크기, 모양의 조절가능성과 이동가능성, 공간의 변용가능성으로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사진 1> 다양한 준사적영역(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입구, 복도코너, 공적영역 주변활용, 알코브)

설은 4개(B, J, O, R시설)에 불과했고 6인용을 초과하는 다인용테이블은 4개(A, B, F, M시설)가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공간을 구성유형과 형태별로 그 실태를 조사하고, 공간의 위계적 특성을 사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노인요양시설 층별 활동공간의 구성유형은 집중, 연계, 구획, 분산으로 나타났고, 이 중 유니트케어를 하고 있는 시설은 다시 위계적연결, 유니트연결, 유니트독립으로 분류되었다. 국내 노인요양시설은 집중형이 가장 많았고, 이 중 유니트케어시설은 구획형과 유니트연결형이 많았다. 최근으로 오면서 유형별로 고루 분포되는 경향이며 수도권에서 분산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활동공간의 형태는 홀, 복도확장, 넓은복도, 일반복

도, 독립, 거실, 알코브의 7가지로 분류되었다. 시설의 대규모 활동공간은 홀과 복도확장 형태가, 소규모 활동공간은 알코브와 독립 형태가 가장 많았다. 공간구성 유형에 따라 복도확장은 집중형, 홀형은 구획형에서 많이 나타났다.

셋째, 19개 시설을 대상으로 유형별 위계적 특성을 사례 분석한 결과 공적영역 내 활동공간의 주요형태인 홀과 복도확장은 접근성과 개방성이 모두 만족되었으나, 독립 형태는 공적·준공적영역 모두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사적영역의 활동공간은 대부분 공적·준공적영역의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고 거주실 주변과 활동관찰이 가능한 장소가 부족하였다. 전체적으로 위계적 영역별 활동공간의 제공에만 치중했을 뿐 그 흐름은 고려하지 않아 각 영역이 혼재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공적·준공적영역의 분할은 가구에 의한 구획이 가장 많았고, 준사적영역 내 활동공간은 주로 구석장소나 창문·복도코너를 통해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연계형과 분산형의 시설에서 다양한 활동공간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구배치는 대부분 영역에서 소파나 의자의 일렬배치가 나타나

가정적 분위기의 형성에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계획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으로 층별 거주노인이 많은 국내요양시설의 경우 공간의 혼잡과 고립을 막기 위해 집중형이나 구획형보다는 영역의 위계적 흐름이 비교적 좋은 연계형과 분산형의 공간구성을 기본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집중형과 구획형 시설이 불가피할 경우 독립 형태를 제외한 준공적영역의 제공, 가구나 마감재 등을 이용한 영역 내 활동공간의 분할, 그리고 준사적영역의 다양성과 독자성 마련에 유의하도록 한다.

영역별로 좀 더 세밀하게 보면 공적영역과 준공적영역의 활동공간은 개방성과 접근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되, 공적영역은 홀이나 복도확장 형태, 준공적영역은 거실 형태나 복도확장, 혹은 넓은복도 형태로 각각 층과 거주단위의 중심부에 위치시켜 대그룹과 소그룹 활동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준사적영역의 활동공간은 일반 복도와 알코브, 독립 형태 등의 공간적 다양성과 2~3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배치의 다양성, 그리고 독자성을 고려하여 되도록 거주실 주변이나 공적·준공적영역의 주변, 그리고 약간은 고립되었지만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확보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19개 시설사례를 가지고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활동공간의 유형별 위계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향후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상세한 계획지침 설정을 위해 실제 공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관리정책 및 운영특성, 그리고 거주노인의 영역별 공간이용 행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권순정 · 오은진 · 안희창(2006).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모델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2(1), 73-77.

권순정 · 오종희(2004).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거주단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0(2), 39-49.

김민경(2005).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영남대 건축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석(2005). 요양시설 데이룸의 노인행태와 사회성 공간규모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환(1999). 치매노인요양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경남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승수(2001). 치매전문요양시설에서의 치료적 건축환경계획을 위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대홍(2005).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친교공간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실. www.mw.go.kr

손수진 · 이특구(1999). 노인요양시설 주거부분 공유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5(9), 37-45.

송혜정(2002).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은진(2006). 노인수발보호협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환경의 변화. **건축** 0611, 21-24.

윤영선 · 변혜령(2004). 일본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의 공용공간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3(6), 184-195.

이민아(2006). 프로그램 수행공간으로서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휴게홀 평가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5(3), 513-525.

이민아(2006). 노인전문요양시설 공용공간의 위계적 특성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117-129.

이민아(2007). 도시지역 대규모 노인전문요양시설 거주 및 간호단위의 공간구성 특성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4), 54-61.

이재모(2004). 일본 노인복지시설의 유니트케어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0(2), 83-89.

이현정 · 민병호 · 권순정(2007). 일본 유니트케어의 도입배경과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3), 93-101.

임상식(2006). 노인요양시설의 소그룹화 경향에 관한 연구. 관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여주 · 최상현(2005).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거주공간디자인 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4(4), 70-78.

최성형 · 김창국(2004). 노인간호 집합주거의 공용생활공간 계획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2), 1-9.

최지혜 · 함옥 · 이낙운(2004). 노인요양시설의 거주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0(1), 47-57.

한균 · 권순정(2005).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의 복도공간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1(1), 69-76.

Brawley, E.C.(2006). *Design innovations for aging and Alzheimer's*. Ch. 12.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Cohen, U. & Weisman, G.D.(1991). *Holding on to home*.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Howell, S.C.(1980). *Designing for aging: Patterns of use*. Cambridge, MA: The MIT Press.

Newman, O.(1996). *Creating defensible spac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huduser.org/publications/pdf/def.pdf>.

Pinet, C.(1995). *Nursing home design: Characteristics of social spaces and social behavior of resident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Regnier, V.(2002). *Design for assisted living*. Ch.7 Stimulating social interaction.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Wikipedia. *Defensible space theory*.

http://en.wikipedia.org/wiki/Defensible_Space_Theory

- 접수 일 : 2008년 07월 11일
- 심사 일 : 2008년 08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9월 15일